

“더 이상 사자밥은 안올래” 지난해 삼성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던 KIA가 올 시즌 잘나가는 삼성의 발목을 번번이 낚아채며 8개 구단의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의 지형도마저 바꿔 놓고 있다.

프로야구 구단별 천적관계

지난 시즌 삼성에 3승 15패를 당했던 KIA는 11일 현재 4위 두산에 3.5게임 뒤진 5위로 밀려 있는 상황에서 1위 삼성과 4승 4패2무로 팽팽한 호각세를 유지하고 있다.

KIA는 삼성 외에도 최근 상승기류를 탄 두산과 SK에도 각각 5승 3패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IA는 반면 한화와 현대에게는 물 꼴은 ‘종이 호랑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KIA는 독수리(한화)와의 9번 싸움에서 2승 7패를 기록중이다.

현대와의 전적은 더욱 비참하다.

KIA 두산·SK 보면 ‘어흥’ 한화·현대 보면 ‘야옹’

삼성과는 4승4패2무 호각세...작년 열세 탈피

지난 4월 15일 수원전 이후 8연패를 당했고 지난 10일 8-7로 승리하면서 지긋지긋한 연패 사슬을 겨우 끊었다. 시즌 전적은 2승 8패.

대신 호랑이에게 물어 뜯긴 두산과 SK는 아이러니하게도 KIA의 천적인 현대와 한화에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산은 올 시즌 현대전서 7승 4패를 챙겼고 SK도 ‘호랑이 사냥꾼’ 한화를 상대로 7승 4패를 따냈다.

또 SK는 삼성을 만나면 ‘사자밥’이 되고 있다. 지난 4월21일 안방인 인천 문학구장에서 6-2로 이긴 이후 세 달 가까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11일 홈 3-4 패배까지 삼성전 10연패 수모를 겪었다.

SK는 지난해 한국시리즈 챔피언 삼성 라이온즈(사자)에 상대전적 9승7패2무의 우위를 점하며 3위로 포스트시즌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거인’ 롯데가 삼성전 상대전적 4승14패의



절대적 열세로 ‘사자밥’ 신세였지만 올 시즌에는 SK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롯데는 올해 삼성과 9차례 만나 4승5패의 박빙 승부를 펼쳐 지난 시즌과 달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이같은 8개 구단의 물고 물리는 천적 관계를 지켜보는 것도 프로야구의 또 다른 재미가 될 듯 싶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성미가 12일 열린 미 PGA 존디어클래식 골프 연습라운드 도중 사과를 먹고 있다. /AP=연합뉴스

“작년과 같은 실수는 없다”

PGA 다섯번째 도전 위성미 연습라운드서 자신감 피력

“작년 같은 실수는 없다.” 미국 일리노이주 샬비스의 디어런TPC(과 71·6천762야드)에서 13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열리는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첫 통과에 5번째 도전장을 던지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위성미는 작년 이 대회 마지막날 14번째 홀까지 컷 통과 안정권이었던 이후 집중력 부족으로 2개 홀에서 3타를 잃어 아쉽게 2타차로 탈락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위성미는 12일 연습라운드서 인터뷰에서 “작년에는(미국 나이로) 15살이었다. 그때의 실수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올해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미와 이날 연습 라운드를 함께 한 작년 우승자인 손오혜와 잭 존슨(이상 미국) 등도 위성미의 컷 통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존슨은 위성미가 작년보다 샷 거리가 더 늘었다고 평가했다. 존슨은 “놀라운 재능이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

위성미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만큼(기대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미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 우승과 남자대회 컷 통과 등 어떤 것이 더 큰 업적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글쎄요, 둘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봐야죠”라며 욕심을 드러냈다.

위성미는 14일 오전 4시44분 마루야마 다이스케(일본), 제프 코브(미국)와 같은 조로 1번홀을 출발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로골퍼 ‘영건’ 김대섭 SK 텔레콤과 재계약

한국프로골프의 ‘영건’ 김대섭(25)이 SK 텔레콤과 2년간 재계약했다.

지난 2년간 후원해 온 SK텔레콤은 12일 김대섭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연간 2억5천만 원 내외의 후원금을 제공하고 2007년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 진출할 경우 연간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대섭은 올 시즌 버디당 2만 원, 이글당 10만 원씩을 적립, 고향인 제주지역 골프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SK텔레콤도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김대섭과 동일한 금액을 내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00타점 대야망

“팀이 도와줘야”

이승엽 11일 60타점...동료들 출루율 높아야 기록 달성

지난 11일 요코하마전에서 시즌 28호 홈런과 60타점을 동시에 달성한 일본프로야구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100타점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다.

이날까지 83경기에서 타점 60개를 올린 이승엽은 이런 추세라면 시즌 후에는 106개까지 올릴 수 있다.

지난 2002년 마쓰이 히데키(뉴욕 양키스) 이후 요미우리에서 100타점을 넘긴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100타점 돌파는 이승엽 개인 뿐 아니라 팀으로서도 소중하다.

그러나 이승엽의 목표에 최대 걸림돌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현재까지 이승엽의 타점 행진을 가로 막고 있는 이들은 바로 1~2번 테이블 세터진이다.

요미우리의 1.2번 타자는 항상 변한다. 누구를 넣어도 성적이 신통치 않기에 하라 다쓰노리 감독은 갖가지 경우의 수를 쓰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중심타선에 찬스를 만들어주는 테이블세터진의 출루율은 최소 0.350 이상을 쏘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요미우리 1.2번의 출루율은 한심한 수준이다.

가와나카(0.235), 고사카(0.269), 시미즈(0.257), 가

메이(0.252), 오제키(0.293) 등이 1.2번에 주로 나섰지만 출루율은 형편없다.

부상으로 2군에 있던 야노만이 0.352로 괜찮았고 베테랑 기무라는 0.338로 괜찮은 편이나 데타로 나올 때와 선발 출장할 때 차이가 극명하다.

그나마 스즈키가 0.300으로 제일 낫다.

반면 올해 36살로 요코하마의 1번을 도맡은 이시가 0.355로 선전했다.

지난해 센트럴리그 최다안타왕 아오키(야쿠르트·0.

406), 한신의 공격 침범 아카호시(0.361), 히로시마의 톱타자 히가시데(0.350)도 1번 타자다운 선구안과 센스를 갖춰 높은 출루율을 기록 중이다.

요코하마가 센트럴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무라타 슈이치가 타점 1위(73개)를 달릴 수 있는 원동력도 바로 테이블 세터진에서 찾을 수 있다.

무라타는 지난 11일 요미우리전에서도 희생플라이와 2타점 3루타 등으로 타점 3개를 추가했다.

앞 타자가 누상에 출루하면 중심타선의 한 방으로 득점하는 아주 쉽고 확률 높은 방법을 1.2번 타자가 부진한 요미우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선민 VS 전주원

(국민은행)

(신한은행)

여자프로농구 PO 오늘 개막

‘바스켓 퀸’ 정선민(32·천안 국민은행)과 ‘미시 가드’ 전주원(34·안산 신한은행)이 13일 오후 2시 천안에서 열리는 플레이오프(3전2선승제)에서 맞붙는다.

한국 여자프로농구를 대표하는 ‘노장’인 이들은 이번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자프로농구 여블리그 정규리그에서 나이를 잊은 듯한 활약으로 팀을 이끌었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정선민은 득점 11위(12.9점), 리바운드 12위(4.9개), 어시스트 5위(3.5개), 가로채기 7위(1.4개) 등 고른 활약을 펼치며 팀의 정규리그 우승에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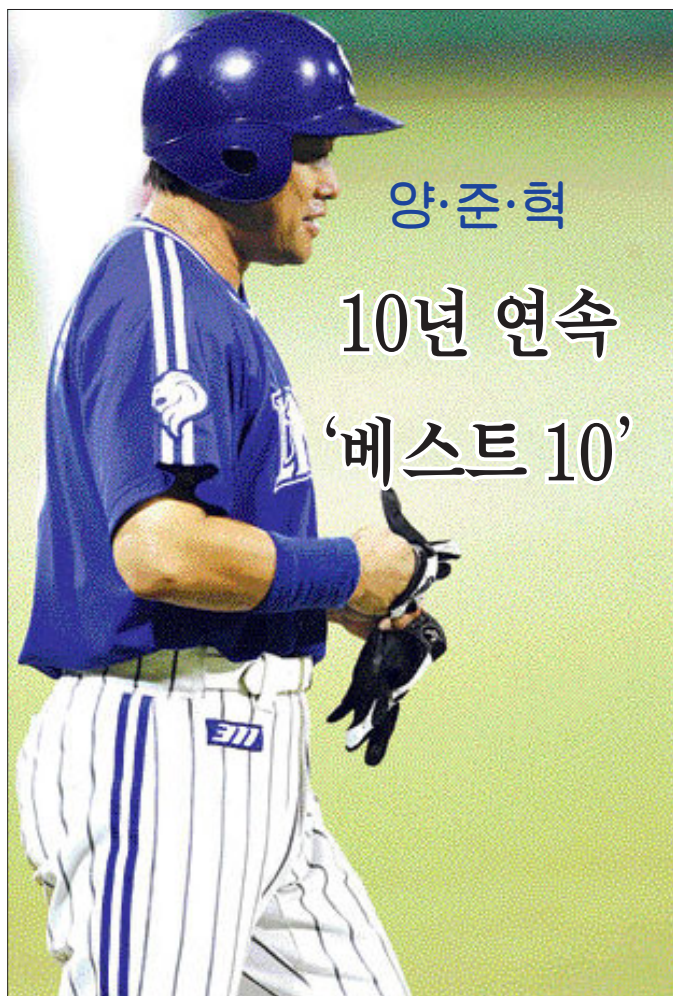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2003년 11월 신세계에서 국민은행으로 옮겨온 뒤 아직까지 챔피언 결전전에 나가보지 못한 정선민으로서는 정규리그 MVP의 기쁨보다 플레이오프 우승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

정선민은 “국민은행에 와서 네 시즌을 했는데 그 중 세 번을 플레이오프 1차전을 이기고 남은 2경기를 다 쳐서 챔피언전에 못 나갔다. 특히 우리를 이기고 올랐던 팀들이 다 우승을 해 더욱 아쉬웠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의 꿈을 이루겠다”며 버프를 걸었다.

이에 맞서는 전주원은 ‘남자로 치자면 40세’라는 평을 들을 정도의 나이에도 또 ‘어시스트 여왕’에 올랐다.

팔 수빈이를 낳고 난 뒤 지난 2005년 여블리그부터 코트로 복귀, 세 시즌을 내리 어시스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주위에서 ‘이러다가 정말 40세가 되겠다’는 말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양준혁

10년 연속 ‘베스트 10’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간판타자 양준혁(37)이 10년 연속 올스타전 베스트10에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12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한 올스타전 팬 인기투표 최종 결과에 따르면 양준혁은 동군 외야수 부문에서 17만4천212표를 얻어 서군 유격수 부문 김민재(16만3천795표·한화)를 제치고 득표 1위에 올랐다.

양준혁은 1997년부터 10년 연속 베스트10에 선정되며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했다.

개인통산 11번째 베스트 10에 뽑힌 양준혁은 이 부문에서 최고 연속 선정 기록(12년 연속,1982~1993년)을 보유한 이만수(48) 미국 사카고 화이트삭스 코치에 도전하게 된다.

올스타 팬투표서 득표 1위...통산 11번째 ‘최다’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동군 외야수 부문에서는 박재홍(SK)이 12만5천30표를 얻어 박한이(11만5천242표·삼성)를 9천788표 차로 따돌리고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포지션별 득표 1위를 구단별로 보면 지난해 1명에 불과했던 한화가 5명으로 삼성(4명)을 제치고 가장 많고 SK, LG(이상 3명), 롯데, KIA(이상 2명), 두산(1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원을 연고로 하는 현대는 아쉽게 베스트 10에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올 시즌 처음으로 베스트10에 선정된 선수는 조동찬(삼성), 문동환, 김태균, 이범호, 데이비스(이상 한화) 등 5명이다.

특히 문동환은 1997년 데뷔 후 10년만에 베스트10에 선정됐고 데이비스는 올해 외국인 선수로는 유일하게 뽑히는 기쁨을 누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